

The 논술	2017 경희대 모의 인문 1
--------	------------------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2>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가]	
<p>19세기와 20세기 초에 길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고 믿고 미국으로 이주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은 위험한 공장이나 비좁은 공동주택에서 일했다. 오늘날은 그만큼 나쁘거나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떠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정부로 일하러 가는 여성들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은 특히 영터리 정보에 현혹될 위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이 종종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일종의 노예계약을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남서부 사막의 국경지대에서 힘든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다. 하지만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노동력 거래는 또 다른 종류의 무역과 같아서 양쪽 모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인 이익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와 같다. A라는 사람은 일을 해서 보수를 받기로 하고, B라는 사람은 A가 하는 일과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한다. 이런 교환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A라는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은 좋건 나쁘건 그 계산법의 일부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은 이민을 가면서 조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간다. 어느 나라든 반드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세계은행은 아이티(Haiti)의 대학 졸업자 중 84퍼센트가 아이티에 살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이티는 UN이 생활수준을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177개국 중 153위다. 많은 아이티의 부모들은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떠난다. 해외에 더 나은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는 발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티는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다. 따라서 교육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이나 증권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동하면 종종 조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보낸다. 니카라과에서는 이러한 송금이 2004년 국민소득의 18퍼센트에 달했다. 여러 나라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송금은 가정의 필수품 구입에 사용되므로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민자들은 현지인들이 하고 싶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p>	
[나]	
<p>나는 인간이 무역, 종교, 이주 그리고 제국의 지배에 의해 다른 공동체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며 감탄했다. 아시리아의 무역상들이 상품목록을 적어서 들고 다녔던 작은 점토판은 블랙베리(Blackberry)가 되었다. 당나귀와 대상의 행렬은 컨테</p>	

이너 선박과 화물수송기가 대신하고 있다. 한줌도 안되던 과거의 탐험가들은 현재 수백만에 달하는 관광객이 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 위치를 산출하는 범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안내를 받는 제트여객기를 타고 높이 떠간다. 서울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시베리아와 중국의 해안선이 눈에 들어올 때 나는 세계의 연결성이 이 대륙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의 상호연결성이 낳은 폐해는 나의 감탄을 압도한다. 세계무역의 흐름에 문을 연 모든 나라들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상호 연결성은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외면해 왔다. 빈곤국가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계속 하락해 왔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화를 걸어본 적도, 태어난 곳을 벗어나 본 적도 없다. 거의 20억의 사람들이 내가 탄 비행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식수, 초등교육, 공공의료,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일부 원인이 되어 농업이 파산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어린이들은 말없는 비탄의 눈길로 화려한 서방을 응시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잊혀진 거주자들은 그저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범죄라는 불안의 근원일 뿐이며, 병원균의 매개체일 뿐이다. 2005년 유엔은 국제 이민자의 수가 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세이고, 가난한 이민자들의 물결을 막기 위한 이민법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1,120킬로미터의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서구 세계 전반의 반이민 정서를 말해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저개발 국가로서는 이주자들이 송금한 돈이 귀중한 수입이지만 대규모 이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와 대학원 졸업 학력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 교육받은 인력의 이주는 가난한 국가의 경제가 후퇴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2004년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1억 8,500만 명이 실직 상태였고, 세계 28억 근로자의 절반은 하루 2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격차는 66배까지 벌어졌고, 급여가 더 나은 일자리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절망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가려는 시도를 한다. 2006년 상반기 9개월 동안 이민을 희망하는 약 2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해 세네갈어로 이렇게 말했다. "Barcelona ou barxax, 바르셀로나 아니면 죽음을!"

[다]

"문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희랍어로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살라도는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방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힐랄이 말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일컫는 일반명사란다. 서로 다른 종족과 서로 다른 종교 그리고 서로 다른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지. 그러므로 '에티오피아'라는 일반명사는 확장적인 성격과 내포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지. 반면에 '소말리아'라는 말은 달라. 소말리아는 아주 구체적이지. 그 누구도 소말리아인이거나 소말리아인이

아니지. 둘 중의 하나뿐이야. ‘에티오피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구분이 불가능하지.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나이지리아인’도, ‘케냐인’도, ‘수단인’도, ‘자이레인’도 모두 마찬가지지. 모두 구분이 불가능하지. ‘에티오피아’라는 말의 의미는 검은 인종의 땅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자이레가 포르투갈어인 것 아니? 강 이름을 딴 포르투갈어지. 아마도 포르투갈의 한 탐험가가 우연히 상륙하게 된 나라의 이름을 따와 지은 것이겠지. 그 이름 속에는 ‘진정으로 그 민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단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야. 니제르 강 이름을 따서 루가드(영국의 작가)의 연인이 지은 거지. 수단 역시 흑인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개념상으로 볼 때 일반명사와 구체명사의 싸움일 뿐이래요. 소련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단결기구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모두 일반명사를 지지한다고요. 구체명사를 지지하지 않지. 왜 그런 줄 아시오? 자기들도 일반명사에 속해 있기 때문이래요.”

[라]

태고의 국민적 공업들은 절멸되었고, 또 나날이 절멸돼 가고 있다. 이 공업들은, 그 도입이 모든 문명 국민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새로운 공업들에 의해, 즉 더 이상 본토의 원료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지대의 원료를 가공하고 그 제품이 자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들에서도 동시에 소비되는 그러한 공업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국산품에 의해 충족되었던 낡은 욕구들 대신에 새로운 욕구들이 들어서는데, 이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먼 나라 토양의 생산물들이 필요하다. 낡은 지방적, 국민적 자급자족과 고립 대신에 국민들 상호간의 전면적 교류, 전면적 의존이 들어선다. 그리고 이는 물질적 생산에서 그렇듯 정신적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별 국민들의 정신적 창작물은 공동 재산이 된다. 국민적 일면성과 제한성은 더욱더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국민적, 지방적 문학들로부터 하나의 세계문학이 형성된다.

[마]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벌로 날여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쟁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늬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엿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하로밤 뽀오한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명애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넷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녀름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으젓한 마음을 지나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어늬 하로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밭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밭에 그득히 사

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꿈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넷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넘엿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평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육한 더북한 샷방 찢
찢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素朴)한 것은 무엇인가

[바]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근대화의 산물인 민족주의가 스스로 자신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동질화하고 나아가서 그런 지역적 조우들과 그것이 함축하는 ‘이질성’을 억압했다.”고 말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이 지역적 삶의 질적 리듬과 구체적 가능성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동질적이고 텅 빈 시간”으로 대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합의 과정은 지역적 삶이 그냥 텅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주변적이고 후진적이며 특수한 삶으로 낙인찍히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기준이 된 것이 바로 문명과 발전이라는 서구적 근대성의 원리였다. 이 서구적 세계화의 원리는 근대 국민국가들 간의 경쟁의 원리이자 지역을 통제하는 원리로 기능했다. 한편으로 서구적 근대성은 문명과 발전을 이념적 목적으로 삼고 국민/민족들 간의 경쟁과 각축을 통해 지배와 통제의 위계구조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논거로 기능했고, 다른 한편 이 기준이 지역에서 작용할 때는 “문명과 진보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동질화와 동일시하고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위해 지역적인 것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의식”으로 기능했다.

풀이	2017 경희대 모의 인문 1
----	------------------

1. 1번 문제 풀이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가]	제시문 내용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길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고 믿고 미국으로 이주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은 위험한 공장이나 비좁은 공동주택에서 일했다. 오늘날은 그만큼 나쁘거나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떠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정부로 일하러 가는 여성들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이러한 송금이 2004년 국민소득의 18퍼센트에 달했다. 여러 나라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송금은 가정의 필수품 구입에 사용되므로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민자들은 현지인들이 하고 싶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
	기준에 따른 독해
	제시문 [가]는 본국에서의 가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로 이주한 주민들이, 이민자라는 형편 때문에 열악한 생활여건 및 노동의 착취에 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함으로써 개선된 성과를 거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소득의 일부를 이전하고,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담당하는 등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본다.
[나]	제시문 내용
	서울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시베리아와 중국의 해안선이 눈에 들어올 때 나는 세계의 연결성이 이 대륙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의 상호연결성이 낳은 폐해는 나의 감탄을 압도한다. 세계무역의 흐름에 문을 연 모든 나라들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빈곤국가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계속 하락해 왔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화를 걸어본 적도, 태어난 곳을 벗어나 본 적도 없다.
	거의 20억의 사람들이 내가 탄 비행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식수, 초

	<p>등교육, 공공의료,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일부 원인이 되어 농업이 파산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p> <p>저개발 국가로서는 이주자들이 송금한 돈이 귀중한 수입이지만 대규모 이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와 대학원 졸업 학력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 교육받은 인력의 이주는 가난한 국가의 경제가 후퇴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2004년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1억 8,500만 명이 실직 상태였고, 세계 28억 근로자의 절반은 하루 2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격차는 66배까지 벌어졌고, 급여가 더 나은 일자리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나]는 기술 및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관계의 긴밀성을 강화해 온 세계화가 나름의 유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추진해 온 저개발국가들의 빈곤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의 보건상태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국가들에서는 고급인력이 선진국으로 유출됨으로써 인구가 격감하고 경제가 침체되며, 주민들이 만성적인 실업과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본다.</p>
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①	<p>국가간 교역의 증대 및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는 전지구적인 연계를 강화하였다. 제시문 [가]는 본국에서의 가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로 이주한 주민들이, 이민자라는 형편 때문에 열악한 생활여건 및 노동의 착취에 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함으로써 개선된 성과를 거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소득의 일부를 이전하고,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담당하는 등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나]는 기술 및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관계의 긴밀성을 강화해 온 세계화가 나름의 유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추진해 온 저개발국가들의 빈곤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의 보건상태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국가들에서는 고급인력이 선진국으로 유출됨으로써 인구가 격감하고 경제가 침체되며, 주민들이 만성적인 실업과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본다.</p>
②	<p>세계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이주에 대하여, [가]는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자 하는 저개발국가 주민들의 선진국으로의 이주가 본국 및 현지국 쌍방에 이익을 가져 오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는 반면, [나]는 본국의 상황에 의하여 촉발된 해당 국가 주민들의 선진국으로의 이주가 양국간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p>

2. 2번 문제 풀이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바]	제시문 내용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근대화의 산물인 민족주의가 스스로 자신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동질화하고 나아가서 그런 지역적 조우들과 그것이 함축하는 ‘이질성’을 억압했다.”고 말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이 지역적 삶의 질적 리듬과 구체적 가능성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동질적이고 텅 빈 시간”으로 대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합의 과정은 지역적 삶이 그냥 텅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주변적이고 후진적이며 특수한 삶으로 낙인 찍히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기준이 된 것이 바로 문명과 발전이라는 서구적 근대성의 원리였다. 이 서구적 세계화의 원리는 근대 국민국가들 간의 경쟁의 원리이자 지역을 통제하는 원리로 기능했다. 한편으로 서구적 근대성은 문명과 발전을 이념적 목적으로 삼고 국민/민족들 간의 경쟁과 각축을 통해 지배와 통제의 위계구조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논거로 기능했고, 다른 한편 이 기준이 지역에서 작용할 때는 “문명과 진보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동질화와 동일시하고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위해 지역적인 것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의식”으로 기능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제시문 [바]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가 지역적 삶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주변적이고 후진적인 삶의 양식으로 타자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로 대변되는 서구적 근대성은 국가와 민족들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 내부의 다양성을 동질화시키고, 나아가 문명과 진보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것을 위해 지역적인 요소를 억압하는 ‘역사적 의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내용 “문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희랍어로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살라도는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방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힐랄이 말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일컫는 일반명사란다. 서로 다른 종족과 서로 다른 종교 그리고 서로 다른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지. 그러므로 ‘에티오피아’라는 일반명사는 확장적인 성격과 내포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지. 반면에 ‘소말리아’라는 말은 달라. 소말리아는 아주 구체적이야. 그 누구도 소말리아인이거나 소말리아인이 아니야. 둘 중의 하나뿐이야. ‘에티오피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구분이 불가능하
[다]	

	<p>지.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나이지리아인’도, ‘케냐인’도, ‘수단인’도, ‘자이레인’도 모두 마찬가지지. 모두 구분이 불가능하지. ‘에티오피아’라는 말의 의미는 검은 인종의 땅을 의미하기 때문이지.”</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다]의 작가는 소말리아를 제외한 에티오피아, 수단 등의 명칭은 그 지역의 특성이 결여된 채 서구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붙여진 일반명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그들의 고유한 민족적·지역적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명사에 속한 국가의 사람들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서구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 지역적 삶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훼손당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명을 수용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의 서구중심의 세계화 논리가 아프리카의 고유한 지역적 정체성을 억압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p>
[라]	<p>제시문 내용</p>
[라]	<p>태고의 국민적 공업들은 절멸되었고, 또 나날이 절멸돼 가고 있다. 이 공업들은, 그 도입이 모든 문명 국민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새로운 공업들에 의해, 즉 더 이상 본토의 원료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지대의 원료를 가공하고 그 제품이 자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들에서도 동시에 소비되는 그러한 공업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국산품에 의해 충족되었던 낡은 욕구들 대신에 새로운 욕구들이 들어서는 데, 이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먼 나라 토양의 생산물들이 필요하다. 낡은 지방적, 국민적 자급자족과 고립 대신에 국민들 상호간의 전면적 교류, 전면적 의존이 들어선다. 그리고 이는 물질적 생산에서 그렇듯 정신적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별 국민들의 정신적 창작물은 공동 재산이 된다. 국민적 일면성과 제한성은 더욱 더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국민적, 지방적 문학들로부터 하나의 세계문학이 형성된다.</p>
[라]	<p>기준에 따른 독해</p>
[라]	<p>작용과 의존이 심화되면서 점차 세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가 서구 중심의 세계화가 국민국가 간 지배와 통제의 위계구조 및 지역적인 것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면, 제시문 [라]는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적 경제/문화가 국민적 일면성과 제한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세계경제/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p>
[마]	<p>제시문 내용</p>
[마]	<p>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별로 날여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썩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p>

	<p>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엿 은덩이 예데가리밭에서 하로밤 뽀오한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p> <p>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찜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땀추가루를 좋아하고 싱 싱한 산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 북한 샷방 찢찢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 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素朴)한 것은 무엇인가</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마]는 음식(국수)과 관련된 과거의 소소한 풍경을 떠올리며 일제 강점기 뽀뽀이 흩어져 버린 민족적 삶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작 품이다. 이러한 평화롭고 순박한 농촌공동체의 모습은, 세계화의 논리에 의해 타자화된 제시문 [바]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지역의 모습과 다른 성격 을 지닌다. 시인은 오히려 지역적 삶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문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 [바]의 서구적 세계화 논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p>
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①	제시문 [바]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가 지역적 삶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주변적이 고 후진적인 삶의 양식으로 타자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로 대변 되는 서구적 근대성은 국가와 민족들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 내부의 다양성을 동질화시키고, 나아가 문명과 진보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것을 위해 지역적인 요소를 억압하는 ‘역사적 의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제시문 [다]의 작가는 소말리아를 제외한 에티오피아, 수단 등의 명칭은 그 지 역의 특성이 걸여된 채 서구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붙여진 일반명사에 불과하 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그들의 고유한 민족적·지역적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일반 명사에 속한 국가의 사람들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서구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 지역적 삶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훼손당하고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명을 수용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의 서구중 심의 세계화 논리가 아프리카의 고유한 지역적 정체성을 억압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라]는 지역에 기반한 자급자족적 경제/문화가 지역·국가·민족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의존이 심화되면서 점차 세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 문 [바]가 서구 중심의 세계화가 국민국가 간 지배와 통제의 위계구조 및 지역 적인 것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면, 제시문 [라]는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적 경제/문화가 국민적 일면성과 제한성을 넘어

	서는 보편적인 세계경제/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④	제시문 [마]는 음식(국수)과 관련된 과거의 소소한 풍경을 떠올리며 일제 강점기 뿔뿔이 흩어져 버린 민족적 삶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평화롭고 순박한 농촌공동체의 모습은, 세계화의 논리에 의해 타자화된 제시문 [바]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지역의 모습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시인은 오히려 지역적 삶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문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 [바]의 서구적 세계화 논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The 논술	2017 경희대 모의 인문 2
--------	------------------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2>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가]
<p>포스터 속의 주인공인 루스 세인트 데니스는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녀는 인도의 여신으로 등장하여 홀로 춤추며 무대를 장악했다. 나는 그 매혹적인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장엄했다. 오랫동안 엄격한 청교도 가법으로 훈련된 신앙심 깊은 내게 그 장엄함은 그대로 온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신의 이름으로, 신의 모습으로, 신의 섬광 같은 위용으로 나를 압도했다. 그 순간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열일곱의 나이에 나는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분명한 순간이었는지 너무도 확연하게 알고 있다. 온 우주가 공명하듯 내게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번개처럼 분명한 섬광이고,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계시였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 춤을 보는 순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가장 나다운 것들이 요동을 쳤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춤꾼이었고, 춤추며 살게 운명 지어졌으며, 춤이야말로 내 기쁨과 즐거움이며 우주적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확연한 깨달음, 너무도 분명한 내적 공명, 열일곱의 내가 맛본 판타지는 내 영혼에 찍힌 각인이었다. 너무도 뜨겁고 강렬하고 황홀하여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감격이었던 것이다. 바람과 매가 부딪히듯 아무 소리도 없이 나는 푸른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가 하면, 지금껏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 번도 그렇게 쳐다본 적 없는 이 세상을 말이다. 어쩌면 나는 뉘싯바늘에 단단히 입이 걸린 고기 같았다.</p>
[나]
<p>얼마 전 중국 청두에 갔다가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해 들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의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25미터에 이르도록 큰다는 것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죽은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며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빨리 그리고 높이 커나간다. 나는 우리의 인생이 이 모죽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물을 한번 끓여 보라. 섭씨 100도에 이르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이내 식어 버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면 물은 기체로 변해 하늘로 올라간다.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아무 성과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이 어렵다. 10만km 노력해서 10만km의 성과가 꼬박꼬박 나온다면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섭씨 100도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지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시도해 보다가 결국 포기한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묵묵히 버티며 더 뜨거운 땀을 쏟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다.</p>

<p>[다]</p> <p>한번은 군부대에 강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언제나처럼 형식적인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병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소위 말하는 스펙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시원찮은데, 자기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p> <p>“음, 잘 안 될 거예요.”</p> <p>그러자 병사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뭔가 이상하다, 이런 직감들이 들었나 봐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앞에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p> <p>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의 수용소와 소련의 그 악명 높은 수용소 군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들은 ‘곧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영원히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는 쉽지 않아. 어쩌면 나치는 영원할 수도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 나는 오래지 않아 가스실로 끌려가 비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면도부터 해야겠다. 수용소에서 누가 본다고 면도를 하냐고? 그럼 뭘 하지? 가만히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나’</p> <p>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 판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개인위생을 챙기고 하루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황된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p>
<p>[라]</p> <p>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p>
<p>[마]</p> <p>장을 볼 때 일반 화장지 대신 무형광물질 티슈를 사고, 탄산음료를 집었다 생과일주스로 바꿔 들었다. 몇 백 원 더 비싸지만 부드러운 국산 콩 두부를 먹었다.</p> <p>생필품을 절약하지 않으면 돈 모으기가 힘든데, 씹씹이가 커 눈만 높아진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번기에 앉아 화장지를 끊을 때마다, 부드러운 두부 조직이 식도를 건드릴 때마다, 전에 없는 설렘과 만족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런 ‘기분’도 만약 구매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계속하고’ 싶었다. 이 정도는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인 행복이라고. 이걸 오</p>

래 쓸 거니까, 이걸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하는 식의 근거로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골라 담았다. ‘아주 조금 나은’ 물건에 대한 욕구. 그냥 다리미가 아닌 스팀다리미, 보통 드라이기가 아닌 음이온드라이기, 일본 생맥주, 핸드 드립 커피, 고농축 에센스에 꼭 짚은 마스크 팩……. 한 번 높아진 눈을 다시 낮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직장 동료들의 조언도 한몫했다. 그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식의 고집과 풍습을 공유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방은 비싼 걸 매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좋은 걸 써야 한다. 항상 입는 코트는 유명 브랜드로 걸쳐야 한다. 여자는 머릿결이 생명이다. 피부가 명함이다 등. ‘무엇 무엇만은’의 목록은 점점 늘어갔다. 모든 게 중요하고 많은 게 필수였다. 소비는 내가 현재 대도시의 왕성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나 역시 그 신진대사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리하여 뭔가 지볼할 때, 나는 더 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딱 한 뼘만……. 9센티미터만큼이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랐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많은 물건 중 내게 ‘딱 맞는 한 뼘’은 없었다는 거다. 모든 건 늘 반 뼘 모자라거나 한 뼘을 초과했다. 본디 이 세계의 가격은 욕망의 크기와 똑 맞아떨어지지 않게 매겨졌다는 듯. 나는 늘 한 뼘 더 초과되는 쪽을 선택했다.

[바]

물론, 공부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공부가 아니라 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이 버거운 것이다. 공부 그 자체는 재미있는 두뇌 및 신체 활동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 배워 가면 수월하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 점수 따기로 환원되다 보니, 그 본질을 망각하고 편차치에 집착한다. 한국 학생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아예 학습 의욕을 잃는’ 것도, 공부 본래의 즐거움을 잃고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이다. 공부는 세상의 발견이고 삶의 연습이다.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롯이 마음을 향해 내면을 닦는 수행(修行)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잠재력을 두드리는 것이 학문의 보람이다. 배움의 인연(학연)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만들어 간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앞에 대한 의지는 삶에 대한 경외감에서 솟아 오른다.

풀이	2017 경희대 모의 인문 2
----	------------------

1. 1번 문제 풀이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가]	제시문 내용 포스터 속의 주인공인 루스 세인트 데니스는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녀는 인도의 여신으로 등장하여 홀로 춤추며 무대를 장악했다. 나는 그 매혹적인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장엄했다. 오랫동안 엄격한 청교도 가법으로 훈련된 신앙심 깊은 내게 그 장엄함은 그대로 온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신의 이름으로, 신의 모습으로, 신의 섬광 같은 위용으로 나를 압도했다. 그 순간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열일곱의 나이에 나는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분명한 순간이었는지 너무도 확연하게 알고 있다. 온 우주가 공명하듯 내게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번개처럼 분명한 섬광이고,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계시였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 춤을 보는 순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가장 나다운 것들이 요동을 쳤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춤꾼이었고, 춤추며 살게 운명 지어졌으며, 춤이야말로 내 기쁨과 즐거움이며 우주적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확연한 깨달음, 너무도 분명한 내적 공명, 열일곱의 내가 맞본 판타지는 내 영혼에 찍힌 각인이었다. 너무도 뜨겁고 강렬하고 황홀하여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감격이었던 것이다. 바람과 매가 부딪히듯 아무 소리도 없이 나는 푸른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가 하면, 지금껏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 번도 그렇게 쳐다본 적 없는 이 세상을 말이다. 어쩌면 나는 낚싯바늘에 단단히 입이 걸린 고기 같았다.
	기준에 따른 독해 제시문 [가]는 타국의 여신으로 분하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무대를 지배한 한 무용수의 춤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영혼을 빼앗기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인생의 길을 숙명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화자의 흥분과 감동을 묘사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규율에 기반한 가정의 법도에 순종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화자에게, 그날 목도했던 공연은 내면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운명적 순간이기도 했다.
	제시문 내용 얼마 전 중국 청두에 갔다가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해 들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의 어느 순간부터는
[나]	

	<p>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25미터에 이르도록 큰다는 것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죽은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며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빨리 그리고 높이 커나간다. 나는 우리의 인생이 이 모죽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물을 한번 끓여 보라. 섭씨 100도에 이르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이내 식어 버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면 물은 기체로 변해 하늘로 올라간다.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아무 성과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이 어렵다. 10만㎞ 노력해서 10만㎞의 성과가 꼬박꼬박 나온다면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섭씨 100도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지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시도해 보다가 결국 포기한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묵묵히 버티며 더 뜨거운 땀을 쏟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나]는 파종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으나 몇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한 대나무 종과, 섭씨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수증기로 변환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가열을 필요로 하는 물의 예를 들며,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진전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p>
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①	<p>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자기를 개발하는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제시문 [가]는 타국의 여신으로 분하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무대를 지배한 한 무용수의 춤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영혼을 빼앗기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인생의 길을 숙명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화자의 흥분과 감동을 묘사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규율에 기반한 가정의 법도에 순종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화자에게, 그날 목도했던 공연은 내면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운명적 순간이기도 했다. 제시문 [나]는 파종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으나 몇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한 대나무 종과, 섭씨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수증기로 변환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가열을 필요로 하는 물의 예를 들며,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진전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p>
②	<p>[가]는 재능과 적성을 우선적으로 조우하는 것이 열정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 [나]는 단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결국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p>

2. 2번 문제 풀이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바]	제시문 내용 물론, 공부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공부가 아니라 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이 버거운 것이다. 공부 그 자체는 재미있는 두뇌 및 신체 활동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 배워 가면 수월하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 점수 따기로 환원되다 보니, 그 본질을 망각하고 편차치에 집착한다. 한국 학생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아예 학습 의욕을 잃는’ 것도, 공부 본래의 즐거움을 잃고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이다. 공부는 세상의 발견이고 삶의 연습이다.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롯이 마음을 향해 내면을 닦는 수행(修行)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잠재력을 두드리는 것이 학문의 보람이다. 배움의 인연(학연)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만들어 간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앞에 대한 의지는 삶에 대한 경외감에서 솟아 오른다.
	기준에 따른 독해
	제시문 [바]는 공부가 시험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현실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을 되새기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공부는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다.
[다]	제시문 내용
	한번은 군부대에 강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언제나처럼 형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병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소위 말하는 스펙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시원찮은데, 자기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자 병사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뭔가 이상하다, 이런 직감들이 들었나 봐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앞에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의 수용소와 소련의 그 악명 높은 수용소 군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들은 ‘곧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영원히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는 쉽지 않아. 어쩌면 나치는 영원할 수도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 나

	<p>는 오래지 않아 가스실로 끌려가 비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면도부터 해야겠다. 수용소에서 누가 본다고 면도를 하냐고? 그럼 뭘 하지? 가만히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나'</p> <p>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 판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개인위생을 챙기고 하루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황된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다]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의 절망적 상황을 예로 들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허황된 낙관주의와 근거 없는 비관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마음을 향해 내면을 닦는 제시문 [바]의 삶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p>
[라]	<p>제시문 내용</p> <p>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라]의 화자는 일체의 감정과 외부의 변화에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초극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삶의 온갖 감정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내면적 단련을 통해 본질적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경지는 제시문 [바]에 제시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 즉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만나는 과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바]가 세상 속에 뿌리 내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학문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제시문 [라]는 일체의 세속적 감정을 초월하는 정신적 경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p>
[마]	<p>제시문 내용</p> <p>장을 볼 때 일반 화장지 대신 무형광물질 티슈를 사고, 탄산음료를 집었다 생과일주스로 바꿔 들었다. 몇 백 원 더 비싸지만 부드러운 국산 콩 두부</p>

	<p>를 먹었다.</p> <p>생필품을 절약하지 않으면 돈 모으기가 힘든데, 씹씹이가 커 눈만 높아진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번기에 앉아 화장지를 끊을 때마다, 부드러운 두부 조식이 식도를 건드릴 때마다, 전에 없는 설렘과 만족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런 '기분'도 만약 구매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계속하고' 싶었다. 이 정도는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인 행복이라고. 이걸 오래 쓸 거니까, 이걸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하는 식의 근거로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골라 담았다. '아주 조금 나은' 물건에 대한 욕구. 그냥 다리미가 아닌 스팀다리미, 보통 드라이기가 아닌 음이온드라이기, 일본 생맥주, 핸드 드립 커피, 고농축 에센스에 폭 절은 마스크 팩……. 한 번 높아진 눈을 다시 낮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직장 동료들의 조언도 한몫했다. 그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식의 고집과 풍습을 공유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방은 비싼 걸 매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좋은 걸 써야 한다. 항상 입는 코트는 유명 브랜드로 걸쳐야 한다. 여자는 머릿결이 생명이다. 피부가 명함이다 등. '무엇 무엇만은'의 목록은 점점 늘어갔다. 모든 게 중요하고 많은 게 필수였다. 소비는 내가 현재 대도시의 왕성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나 역시 그 신진대사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리하여 뭔가 지불할 때, 나는 더 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았다.</p> <p>그러니까 딱 한 뼘만……. 9센티미터만큼이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랐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많은 물건 중 내게 '딱 맞는 한 뼘'은 없었다는 거다. 모든 건 늘 반 뼘 모자라거나 한 뼘을 초과했다. 본디 이 세계의 가격은 욕망의 크기와 똑 맞아떨어지지 않게 매겨졌다는 듯. 나는 늘 한 뼘 더 초과되는 쪽을 선택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제시문 [마]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시대의 흐름이나 세태를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현대인의 소비 생활이 사실은 아무런 자기 만족감도 주지 못하는 가상의 충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제시문 [바]에 제시된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공부의 과정에서 바라 볼 때, 현실의 본질보다는 표면적 의미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의 욕구나 욕망을 주체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p>
<p>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p>	
<p>①</p>	<p>제시문 [바]는 공부가 시험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현실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을 되새기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공부는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다.</p>
<p>②</p>	<p>제시문 [다]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의 절망적 상황을 예로 들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허황된</p>

	<p>낙관주의와 근거 없는 비관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마음을 향해 내면을 닦는 제시문 [바]의 삶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p>
③	<p>제시문 [라]의 화자는 일체의 감정과 외부의 변화에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초극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삶의 온갖 감정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내면적 단련을 통해 본질적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경지는 제시문 [바]에 제시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 즉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만나는 과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바]가 세상 속에 뿌리 내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학문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제시문 [라]는 일체의 세속적 감정을 초월하는 정신적 경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p>
④	<p>제시문 [마]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시대의 흐름이나 세태를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현대인의 소비 생활이 사실은 아무런 자기 만족감도 주지 못하는 가상의 충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제시문 [바]에 제시된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공부의 과정에서 바라 볼 때, 현실의 본질 보다는 표면적 의미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의 욕구나 욕망을 주체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p>

The 논술	2017 경희대 모의 사회 1
<문제 1>	<p>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p> <p>[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p>
<문제 2>	<p>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나], [다]를 비판하시오.</p> <p>[601자 ~ 700자 이하: 배점 40점]</p>
<문제 3>	<p>K 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 예산으로 총 50억 원을 책정하고,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TV 광고를 제작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TV광고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시행될 때 수익을 분석한 결과, TV 광고에 투입하는 예산과 기업의 수익의 관계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였다. 또한 TV 광고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50억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광고 투입액이 30억 원일 때 수익은 최대 1,850억 원이었다. 그리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시행될 때 수익을 분석한 결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예산과 수익의 관계도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였다.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10억 원 이하이면 수익은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며, 10억 원일 때 최대로 1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50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그때의 수익은 얼마인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내용을 평가하시오.</p> <p>[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p>
[가]	
<p>중세 영국의 장원은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어느 땅을 어느 가족이 경작하는가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경작하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 또한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주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의미는 그 땅 위에 형성된 장원이라는 인간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권리들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오늘날처럼 자기 땅이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16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울타리치기(enclosures)’는 이러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어진 계기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발생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울타리가 애초에 없었던 땅은 일종의 공유지로서, 마을 사람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따라 쓸 수 있었고, 특히 가난한 농가들은 여기서 텃밭을 가꾸어 생계를 보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영국의 영주 귀족들은 이런 공유지를 밀어버리고는 울타리를 친 뒤 여기에 양을 방목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몇 백 년 동안 일정한</p>	

<p>땅에서 곡물을 경작해 온 농민들은 줄지에 알거지가 되어 영국 전역을 방황하는 방랑자 무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 상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토머스 모어의 유명한 구절 “양이 사람을 집어삼킨다.”이다. 율타리치기 운동은 개인적 소유권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
<p>[나]</p>
<p>“기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란 어디까지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회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을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윤 추구를 포기한 기업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도 없다. 이윤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존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기업은 결국 사회에 아무 공헌도 못할 것이다. 기업은 바로 이윤 추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데,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한다.</p>
<p>[다]</p>
<p>21세기, 세계는 기업에 경제적 이익 창출 이상의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감성 마케팅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때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상생과 공존의 구도로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꼽히는 글로벌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 그룹의 ‘핑크리본 캠페인’이 좋은 예다. 이 캠페인은 1992년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사 고객들에게 핑크 리본과 유방암 자가 진단카드를 나눠주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2010년 세계 70여 개국에서 1억1000만 개 이상의 핑크리본을 배포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취지에 공감한 다른 기업들의 동참이 줄을 이으며 그 효과가 극대화됐다. 에스티로더는 핑크리본 컬렉션 제품을 출시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유방암 연구재단에 연구 기금으로 기부했다. 참여 기업들 역시 핑크색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했다. 의류업체인 앤클라인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핑크 캐시미어 스웨터를 선보여 기부 목표액인 2만5000달러를 초과 달성했고, 3M은 포스트잇의 핑크 버전으로 8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델타항공은 기체를 핑크색으로 장식하고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핑크 레모네이드를 서비스해 캠페인의 취지를 알린 것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를 얻었다</p>
<p>[라]</p>
<p>Greenwashing,1) when a company tries to portray itself as more environmentally minded than it actually is, has intensified in recent decades as consumers have warmed2) to sustainable and organic products and services. Brands, trying to capitalize3) on that trend, often try to outdo4) one another with eco-credentials.5) But in the rush to be seen as green, companies often exaggerate claims, or simply make things up. Kimberly-Clark, the maker of Huggies disposable diapers,6) introduced a “pure and natural” line, billed as a “superpremium diaper that includes natural, organic materials and ingredients to provide gentle protection for new babies, as well as initial steps toward environmental improvements, without</p>

sacrificing performance.7)” This year, Huggies customers filed a class action against Kimberly–Clark, claiming they had been misled. The diapers included nonorganic materials. “The diapers are neither pure nor natural because they contain unnatural and potentially harmful ingredients such as polypropylene8) and sodium polyacrylate,9)” the lawsuit reads. The company would not comment on ongoing litigation.

-
- 1) greenwashing: 환경 세탁 2) warm: 열의를 띠다, 열광하다 3) capitalize: 기회를 포착하다
 4) outdo: 능가하다 5) eco-credential: 환경보증서(친환경적인 평판이나 기록) 6) disposable diapers: 일회용 기저귀
 7) sacrificing performance: 성능(기능) 저하 8) 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 9) soduim polyacrylate: 폴리아크릴산나트륨

[마]

모란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판이 그림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판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판.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섞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엮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판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판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먹고 싶다.

[바]

미국 시애틀에 있는 ‘그린브릿지(Greenbridge)’는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게 한 소셜 믹스(social mix)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소셜 믹스는 중소형, 대형, 분양, 임대 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 골고루 섞어 지어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소셜 믹스 정책에 따라

빈곤층이 밀집한 공공 임대 주택은 ‘그린브릿지’라는 소득 계층 혼합형 단지로 탈바꿈하였다. 먼저 원거주민 534가구와 일대일 상담을 하였고, 각 가구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착하거나 이주하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낡은 공공 임대 주택을 깔끔한 계층 혼합형 단지로 재개발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임대 주택에서 나타나는 범죄나 일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에서도 임대 주택이 90만 채를 넘어설 정도로 기반은 확충되고 있으나, 임대 주택 거주민의 마음 속 그들은 여전히 여전하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선 공공 임대 아파트들은 분양 아파트와 구분돼 지어지면서 ‘낙인효과’가 심각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소셜 믹스’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혼합적으로 분산 배치해 차별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등에서 대폭 확대해 고정관념도 깨고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과 말동무가 돼 주거나, 노인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

영국 이동통신 기업 보다폰(Vodafone)은 아프리카 주민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모바일 통신수단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M-PESA)를 출시해 은행 계좌 없이도 모바일 통신으로 송금과 출금,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니폰 폴리글루 (Nippon Poly-Glu)는 개발도상국의 오염수를 식수로 바꾸는 수질 정화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으로, 현지 판매원과 관리원을 고용해 마케팅 및 판매 단계의 사업 역량을 혁신함으로써 수익성과 판매원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을 기업 내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하는 외부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윤을 희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착한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현명한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 기업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이다.

기업은 가장 잘하는 사업과 사회의 요구가 만나는 접점을 고려해 공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경쟁 우위를 모색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 가치를 창출하려면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사업과 사회적 이슈를 연계해 기업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

1. [문제 1] 풀이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1) 한 문장 요약 및 기준 찾아내기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중세 영국의 장원은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어느 땅을 어느 가족이 경작하는가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경작하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 또한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주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의미는 그 땅 위에 형성된 장원이라는 인간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권리들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오늘날처럼 자기 땅이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16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울타리치기(enclosures)’는 이러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어진 계기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발생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울타리가 애초에 없었던 땅은 일종의 공유지로서, 마을 사람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따라 쓸 수 있었고, 특히 가난한 농가들은 여기서 텃밭을 가꾸어 생계를 보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영국의 영주 귀족들은 이런 공유지를 밀어버리고는 울타리를 친 뒤 여기에 양을 방목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몇 백 년 동안 일정한 땅에서 곡물을 경작해 온 농민들은 졸지에 알거지가 되어 영국 전역을 방황하는 방랑자 무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 상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토머스 모어의 유명한 구절 “양이 사람을 집어삼킨다.”이다. 울타리치기 운동은 개인적 소유권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 문장 요약
	[가]의 ‘울타리치기’ 운동은 개인 소유권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됨을 설명하고 있다.
[나]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기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란 어디까지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회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을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윤 추구를 포기한 기업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도 없다. 이윤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존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기업은 결국 사회에 아무 공헌도 못할 것이다. 기업은 바로 이윤 추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데,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한다.
	한 문장 요약
	[나]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자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21세기, 세계는 기업에 경제적 이익 창출 이상의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감성 마케팅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때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달는 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상생과 공존의 구도로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가

	<p>장 성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꼽히는 글로벌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 그룹의 ‘핑크리본 캠페인’이 좋은 예다. 이 캠페인은 1992년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사 고객들에게 핑크 리본과 유방암 자가 진단카드를 나눠 주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2010년 세계 70여 개국에서 1억1000만 개 이상의 핑크리본을 배포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취지에 공감한 다른 기업들의 동참이 줄을 이으며 그 효과가 극대화됐다. 에스티로더는 핑크리본 컬렉션 제품을 출시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유방암 연구재단에 연구 기금으로 기부했다. 참여 기업들 역시 핑크색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했다. 의류업체인 앤클라인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핑크 캐시미어 스웨터를 선보여 기부 목표액인 2만5000달러를 초과 달성했고, 3M은 포스트잇의 핑크 버전으로 8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델타항공은 기체를 핑크색으로 장식하고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핑크 레모네이드를 서비스해 캠페인의 취지를 알린 것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를 얻었다</p>
<p>한 문장 요약</p>	<p>[다]는 기업이 이기주의를 넘어서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라]</p>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Greenwashing,1) when a company tries to portray itself as more environmentally minded than it actually is, has intensified in recent decades as consumers have warmed2) to sustainable and organic products and services. Brands, trying to capitalize3) on that trend, often try to outdo4) one another with eco-credentials.5) But in the rush to be seen as green, companies often exaggerate claims, or simply make things up. Kimberly-Clark, the maker of Huggies disposable diapers,6) introduced a “pure and natural” line, billed as a “superpremium diaper that includes natural, organic materials and ingredients to provide gentle protection for new babies, as well as initial steps toward environmental improvements, without sacrificing performance.7)” This year, Huggies customers filed a class action against Kimberly-Clark, claiming they had been misled. The diapers included nonorganic materials. “The diapers are neither pure nor natural because they contain unnatural and potentially harmful ingredients such as polypropylene8) and sodium polyacrylate,9)” the lawsuit reads. The company would not comment on ongoing litigation.</p> <p>-----</p> <p>1) greenwashing: 환경 세탁 2) warm: 열의를 띠다, 열광하다 3) capitalize: 기회를 포착하다 4) outdo: 능가하다 5) eco-credential: 환경보증서(친환경적인 평판이나 기록) 6) disposable diapers: 일회용 기저귀 7) sacrificing performance: 성능(기능) 저하 8) 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 9) soduim polyacrylate: 폴리아크릴산나트륨</p>
<p>한 문장 요약</p>	<p>[라]는 기업이 ‘환경세탁’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으며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것을 설명한다.</p>

[마]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판이 그림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판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판.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손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섞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엮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판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판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먹고 싶다.</p>
	<p>한 문장 요약</p> <p>[마]는 개인화된 냉혹한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p>
[바]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미국 시애틀에 있는 ‘그린브릿지(Greenbridge)’는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게 한 소셜 믹스(social mix)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소셜 믹스는 중소형, 대형, 분양, 임대 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 골고루 섞어 지어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소셜 믹스 정책에 따라 빈곤층이 밀집한 공공 임대 주택은 ‘그린브릿지’라는 소득 계층 혼합형 단지로 탈바꿈하였다. 먼저 원거주민 534가구와 일대일 상담을 하였고, 각 가구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착하거나 이주하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낡은 공공 임대 주택을 깔끔한 계층 혼합형 단지로 재개발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임대 주택에서 나타나는 범죄나 일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에서도 임대 주택이 90만 채를 넘어설 정도로 기반은 확충되고 있으나, 임대 주택 거주민의 마음 속 그들은 여전하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선 공공 임대 아파트들은 분양 아파트와 구분돼 지어지면서 ‘낙인효과’가 심각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소셜 믹스’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혼</p>

		합적으로 분산 배치해 차별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등에서 대폭 확대해 고정관념도 깨고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과 말동무가 돼 주거나, 노인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 문장 요약		[바]도 임대 아파트에 다양한 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통해 계층적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기준설정		
기준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 간의 관계	
3)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개인주의		VS
공동체주의		
4)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가] ~[바]는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눌 수 있다.
2문단	②	[가], [나], [라]는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공동체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본다.
	③	[가]의 '올타리치기' 운동은 개인 소유권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됨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⑤	[라]는 기업이 '환경세탁'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으며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것을 설명한다.
3문단	⑥	[다], [마], [바]는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⑦	[다]는 기업이 이기주의를 넘어서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⑧	[마]는 개인화된 냉혹한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⑨	[바]도 임대 아파트에 다양한 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통해 계층적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문제 2] 풀이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나], [다]를 비판하시오. [601자 ~ 700자 이하: 배점 40점]		
1)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	제시문 내용	

	<p>영국 이동통신 기업 보다폰(Vodafone)은 아프리카 주민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모바일 통신수단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M-PESA)를 출시해 은행계좌 없이도 모바일 통신으로 송금과 출금,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니폰 폴리글루 (Nippon Poly-Glu)는 개발도상국의 오염수를 식수로 바꾸는 수질 정화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으로, 현지 판매원과 관리원을 고용해 마케팅 및 판매 단계의 사업 역량을 혁신함으로써 수익성과 판매원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을 기업 내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하는 외부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윤을 희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착한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현명한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 기업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이다.</p> <p>기업은 가장 잘하는 사업과 사회의 요구가 만나는 접점을 고려해 공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경쟁 우위를 모색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 가치를 창출하려면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사업과 사회적 이슈를 연계해 기업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제시문 [사]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
2) [사]로써 [마]~[바]를 비판	
[나]	<p>[나]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책임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제시문 [나]는 비판받을 수 있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적 지원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여러 과제에 책임 있게 동참하는 것이 기업윤리에 합당한 태도이다.</p>
[다]	<p>[다]는 기업이 이기주의를 넘어서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처럼 기업이 이윤 창출 외에도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윤과 사회적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다]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사회 기부나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화장품 판매 회사가 유방암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합하여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p>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3) 답안작성	
1문단	제시문 [사]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문단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제시문 [나]는 비판받을 수 있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적 지원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여러 과제에 책임 있게 동참하는 것이 기업 윤리에 합당한 태도이다.
3문단	이에 반해 제시문 [다]처럼 기업이 이윤 창출 외에도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윤과 사회적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다]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사회 기부나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화장품 판매 회사가 유방암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합하여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3. [문제 3] 풀이	
<p>K 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 예산으로 총 50억 원을 책정하고,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TV 광고를 제작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TV광고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시행될 때 수익을 분석한 결과, TV 광고에 투입하는 예산과 기업의 수익의 관계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였다. 또한 TV 광고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50억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광고 투입액이 30억 원일 때 수익은 최대 1,850억 원이었다. 그리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시행될 때 수익을 분석한 결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예산과 수익의 관계도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였다.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빈곤 퇴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10억 원 이하이면 수익은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며, 10억 원일 때 최대 1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50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그때의 수익은 얼마인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내용을 평가하시오.</p> <p>[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p>	
<p>TV 광고와 빈곤 퇴치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가 모두 2차 함수를 가지므로 TV 광고에 대한 투자를 x라고 할 때 수익 함수는 $R_1 = a_1x^2 + b_1x + c_1$이며, 빈곤 퇴치에 대한 투자를 y라고 할 때 수익 함수는 $R_2 = a_2y^2 + b_2y + c_2$ 형태를 가진다. TV 광고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즉 $x=0$일 때 수익 $R_1 = 50$이므로 c_1는 50이다. 또한 $x=30$일 때 $R_1 = 1850$으로 최대이므로 $\frac{b_1}{2a_1} = 30$이고, $\frac{b_1^2}{4a_1^2} + c_1 = 1850$이다. TV 광고의 수익 함수</p>	

$R_1 = -2x^2 + 120x + 50$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 $R_2 = y^2 - 20y$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V 광고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는 $R_1 + R_2 = -x^2 + 120x + 50 + y^2 - 20y$ 이다. 그리고 기업 홍보 기금이 50억 원이므로 $x + y = 50$ 이므로 $y = 50 - x$ 이므로, 이 기업의 수익 함수 $R_1 + R_2 = -x^2 + 40x + 1550$ 이다. 이것을 다시 풀면, $R_1 + R_2 = -(x - 20)^2 + 1950$ 이므로 기업은 TV 광고에 20억 원,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30억 원을 투자할 때 최대 수익 1,950억 원을 얻는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단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시문 [나]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공익이 반드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e 논술	2017 경희대 모의 사회 2
--------	------------------

<문제 1>	<p>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p> <p>[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p>
<문제 2>	<p>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 [라]를 비판하시오.</p> <p>[601자 ~ 700자 이하: 배점 40점]</p>
<문제 3>	<p>어느 마을에서 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로부터의 탈퇴)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 마을은 총 100명의 청년과 장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청년일 확률은 0.4이었다. 그리고 임의의 청년 한 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찬성일 확률은 0.2이었다. 또 임의의 장년 한 명에게 질문하였을 때 반대일 확률도 0.2이었다. 청년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1/2이며, 장년은 3/4이다. 이 마을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제시문 [나]의 주장에 대해서 논하시오.</p> <p>[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p>

[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데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메리카체제의 대부분은 다수의 당연한 세력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강화시키려 해왔다. 모든 정치제도들 가운데서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메리카인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국민이 ‘직접’ 그리고 ‘아주 짧은 임기로’ 선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의원들을 선거구민들의 일반적인 신념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정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아메리카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수의 권력을 우세할 뿐 아니라 막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수의 도덕적인 권위는 단 한 사람보다는 결합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성과 지혜가 있다는, 그리고 입법자들의 수는 그들의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론이 사람들의 지능에도 적용되고 있다. 모든 다른 권력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다른 권력보다도 다수의 권위는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요한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복종을 강요한다. 다수 권위의 법률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야 존중된다.

[나]

각 개인의 동의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 때, 그들은 그 공동체를 한 몸으로 행동하는 힘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데, 그 힘은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더 큰 힘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더 큰 힘이 다수의 동의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다수에 의한 결정에 동의하는 의무를 진다. 그래서 다수의 행위는 전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자연과 이성의 법에 의해, 전체의 힘을 가진 것으로 결정된다.

[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산을 갔다. 그런데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몇몇은 동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추측했고, 다른 몇 명은 남쪽일 거라고 느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모두 모여 토론을 했다. 일행 중에는 이 산의 지리를 잘 아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 학생은 좀 가파르긴 하지만 서쪽 고개를 두 번 넘으면 내려가는 길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불이 우거진 서쪽 고개를 쳐다본 어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길을 모르니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직감에 따라 흩어지자고도 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투표를 해서 방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그 말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투표를 했고 가장 많이 나온 '남쪽' 방향으로 가기로 정했다. 결국 그들은 고립되었고 구조되지 못했다.

[라]

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Brexit, became a reality on June 24th, 2016. The result of the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membership referendum* was that the United Kingdom had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by 52% to 48%. The British referendum was a disaster because it failed to achieve just about every single overarching* goal. Rather than provide clarification, the vote has instead caused confusion. Indeed, not even the exit from Brexit can be ruled out. Furthermore, far from pacifying the country, the referendum has created new rifts: between old and young, London and the provinces, the English and the Scottish. In the end, further referenda may follow, with the result that once powerful United Kingdom could be transformed into a loose alliance of marginalized mini-states. Still, as disastrous as the result has been, the British vote does not prove that there is no place in modern democracy for plebiscites.* Referenda can make sense if they are for local initiatives or on issues in which a sufficient number of voters have become engaged prior to the vote. But those who believe that referenda can somehow repair or even replace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making a big mistake. Sometimes referenda make everything worse. In Britain, the Brexit vot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conflict between direct and indirect democracy because parliament, the majority of which is pro-EU*, could refuse to implement the will of the people. The idea of referendums is also often abused elsewhere in Europe as well. Take Hungary, for example, where Prime Minister Viktor Orban soon wants to allow his people to vote in a referendum aimed at rejecting an EU Commission plan to resettle refugees across EU member states.

The lessons from the British referendum disaster are clear: It's not more direct democracy that the EU needs. Rather, it is finally time to implement the long-discussed reforms of European institutions in Brussels. The next British government must strictly implement the referendum result if it doesn't want to transform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to a joke. At the same time, defenders of

direct democracy should also understand that the instrument they champion is a limited one. It is then vital that those elected representatives are subject to effective checks and balances. As Thomas Jefferson,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once said: "When the people fear the government, there is tyranny*. When governments fear the people, there is liberty."

 *referendum: 국민 투표 *overarching: 무엇보다 중요한 *plebiscites: 국민 투표
 *pro-EU: EU 찬성론자 *tyranny: 전체정치, 폭정

[마]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릅니다

[바]

단순 다수 대표제는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선거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05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고작 35%의 득표율로 55%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탓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 방식이 있다. 프랑스 대선도 이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16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대선 전 여론 조사에서는 공화국연합의 자크 시라크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1%, 2차 투표에서는 51%로 각각 20%, 49%인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후보자를 약간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결선 진출자는 우파인 시라크와 극우파인 국민 전선의 장 마리 르펜이었다. 조스팽은 6명의 좌파 후보가 그의 표를 잠식해 떨어졌다. 한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처럼 지역구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사]

직접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의 가장 실질적인 형태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투표와 국민 발안 등이 있고, 지방 차원에서도 다양한 주민 투표와 주민 발안 제도들이 있다. 시민들은 이런 제도에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자 역할을 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에 투표하는 심판자가 되며, 나아가 다양한 정책 모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민주주의 결손’을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시민의 정치적 소외를 감소시키고, 정부 등 국가 기관의 정통성이 공론에 의해 창출되고 확인되고 도전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론적인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칫 무시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어 논의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대표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이 논의되기도 하며, 정치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좀 더 균등한 권력 분포를 지향하는 등의 장점들이 있다.

반면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들은 직접 민주제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전문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심사숙고가 없는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다. 시민 유권자들은 집단적 목소리 안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심각한 토의와 경쟁적 집단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투표에 맡기는 것은 비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닌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없는 책무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1. [문제 1] 풀이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1) 한 문장 요약 및 기준 찾아내기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데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메리카체제의 대부분은 다수의 당연한 세력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강화시키려 해왔다. 모든 정치제도들 가운데서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메리카인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국민이 '직접' 그리고 '아주 짧은 임기로' 선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의원들을 선거구민들의 일반적인 신념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정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아메리카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수의 권력을 우세할 뿐 아니라 막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수의 도덕적인 권위는 단 한 사람보다는 결합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성과 지혜가 있다는, 그리고 입법자들의 수는 그들의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론이 사람들의 지능에도 적용되고 있다. 모든 다른 권력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다른 권력보다도 다수의 권위는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요한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복종을 강요한다. 다수 권위의 법률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야 존중된다.
	한 문장 요약 [가]는 민주 사회에서 다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각 개인의 동의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 때, 그들은 그 공동체를 한 몸으로 행동하는 힘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데, 그 힘은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더 큰 힘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더 큰 힘이 다수의 동의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다수에 의한 결정에 동의하는 의무를 진다. 그래서 다수의 행위는 전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자연과 이성의 법에 의해, 전체의 힘을 가진 것으로 결정된다.
	한 문장 요약 [나]도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유기체인 공동체는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힘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다]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산을 갔다. 그런데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몇몇은 동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추측했고, 다른 몇 명은 남쪽일 거라고 느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모두 모여 토론을 했다. 일행 중에는 이 산의 지리를 잘 아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 학생은 좀 가파르긴 하지만 서쪽 고개를 두 번 넘으면 내려가는 길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불이 우거진 서쪽 고개를 쳐다본 어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길을 모르니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직감에 따라 흩어지자고도 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투표를 해서 방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그 말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투표를 했고 가장 많이 나온 ‘남쪽’ 방향으로 가기로 정했다. 결국 그들은 고립되었고 구조되지 못했다.
한 문장 요약	[다]는 다수결에 의한 판단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이 내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Brexit, became a reality on June 24th, 2016. The result of the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membership referendum* was that the United Kingdom had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by 52% to 48%. The British referendum was a disaster because it failed to achieve just about every single overarching* goal. Rather than provide clarification, the vote has instead caused confusion. Indeed, not even the exit from Brexit can be ruled out. Futhermore, far from pacifying the country, the referendum has created new rifts: between old and young, London and the provinces, the English and the Scottish. In the end, further referenda may follow, with the result that once powerful United Kingdom could be transformed into a loose alliance of marginalized mini-states. Still, as disastrous as the result has been, the British vote does not prove that there is no place in modern democracy for plebiscites.* Referenda can make sense if they are for local initiatives or on issues in which a sufficient number of voters have become engaged prior to the vote. But those who believe that referenda can somehow repair or even replace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making a big mistake. Sometimes referenda make everything worse. In Britain, the Brexit vot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conflict between direct and indirect democracy because parliament, the majority of which is pro-EU*, could refuse to implement the will of the people. The idea of referendums is also often abused elsewhere in Europe as well. Take Hungary, for example, where Prime Minister Viktor Orban soon wants to allow his people to vote in a referendum aimed at rejecting an EU Commission plan to resettle refugees across EU member states.</p> <p>The lessons from the British referendum disaster are clear: It's not more direct democracy that the EU needs. Rather, it is finally time to implement the long-discussed reforms of European institutions in Brussels. The next British government must strictly implement the referendum result if it doesn't want to transform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to a joke. At the same time, defenders of direct democracy should also understand that the instrument they champion is a limited one. It is then vital that those elected representatives are subject to effective checks and balances. As Thomas Jefferson,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once said:</p>

	<p>"When the people fear the government, there is tyranny*. When governments fear the people, there is liberty."</p> <p>-----</p> <p>-</p> <p>*referendum: 국민 투표 *overarching: 무엇보다 중요한 *plebiscites: 국민 투표 *pro-EU: EU 찬성론자 *tyranny: 전체정치, 폭정</p>				
<p>[마]</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6 633 523 1429"> <p>한 문장 요약</p> </td> <td data-bbox="523 633 1366 1429"> <p>[라]는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민의 국민투표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다수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p> </td> </tr> </table>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릅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6 1429 523 1429"> <p>한 문장 요약</p> </td> <td data-bbox="523 1429 1366 1429"> <p>[마]의 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p> </td> </tr> </table>	<p>한 문장 요약</p>	<p>[라]는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민의 국민투표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다수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p>	<p>한 문장 요약</p>	<p>[마]의 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p>
<p>한 문장 요약</p>	<p>[라]는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민의 국민투표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다수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p>				
<p>한 문장 요약</p>	<p>[마]의 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p>				
<p>[바]</p>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단순 다수 대표제는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선거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05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고작 35%의 득표율로 55%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탓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 방식이 있다. 프랑스 대선이 이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16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대선 전 여론 조사에서는 공화국연합의 자크 시라크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1%, 2차 투표에서는 51%로 각각 20%, 49%인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후보자를 약간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결선</p>				

		진출자는 우파인 시라크와 극우파인 국민 전선의 장 마리 르퐁이었다. 조스팽은 6명의 좌파 후보가 그의 표를 잠식해 떨어졌다. 한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처럼 지역구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 문장 요약		[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수제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 기준설정		
기준	의사 결정 과정에 적용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다수결 찬성		VS
다수결 반대		
4)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가] ~[바]는 ‘의사 결정 과정에 적용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다수결 찬성’과 ‘다수결 반대’로 나눌 수 있다.
2문단	②	[가], [나], ‘다수결’을 ‘찬성’하는 글로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다수결이 가지는 힘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③	[가]는 민주 사회에서 다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나]도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유기체인 공동체는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힘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3문단	⑤	[다], [라], [마], [바]는 ‘다수결’을 ‘반대’하는 글로서, 다수에 의한 결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⑥	[다]는 다수결에 의한 판단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이 내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⑦	[라]는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민의 국민투표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다수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
	⑧	[마]의 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⑨	[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수제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 [문제 2] 풀이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 [라]를 비판하시오. [601자 ~ 700자 이하: 배점 40점]		
1)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	제시문 내용	
	직접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의 가장 실질적인 형태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투표와 국민 발안 등이 있고, 지방 차원에서도 다양한 주민 투표와 주민 발안 제도들이 있다. 시민들은 이런 제도에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자 역할을 하거나 주요 정책	

	<p>결정에 투표하는 심판자가 되며, 나아가 다양한 정책 모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한다.</p> <p>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민주주의 결손’을 보완해주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시민의 정치적 소외를 감소시키고, 정부 등 국가 기관의 정통성이 공론에 의해 창출되고 확인되고 도전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론적인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칫 무시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어 논의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대표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이 논의되기도 하며, 정치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좀 더 균등한 권력 분포를 지향하는 등의 장점들이 있다.</p> <p>반면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들은 직접 민주제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일반 국민의 판단 보다는 자신들의 전문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심사숙고가 없는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다. 시민 유권자들은 집단적 목소리 안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심각한 토의와 경쟁적 집단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투표에 맡기는 것은 비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없는 책무성의 문제도 제기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제시문 [사]는 직접민주주의(또는 다수결)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고 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또는 다수결)의 장점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기관의 정통성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정치권력의 독점을 방지한다. 단점은 전문적 지식 없이 심각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떠맡지 않는다는 점이다.</p>
<p>2) [사]로써 [다]~[라]를 비판</p>	
<p>[다]</p>	<p>[다]는 다수결에 의한 판단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이 내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 <p>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다수결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시문 [다]는 비판받을 수 있다. 산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술적 결정은 전문적 지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나이에 의한 권위와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에 의해 방향이 결정됨으로써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p>
<p>[라]</p>	<p>[라]는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민의 국민투표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다수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p> <p>제시문 [라]는 영국의 EU로부터 탈퇴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어 국민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또는 다수결)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는 영국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EU 탈퇴를 사려 깊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평가함으로써 EU 통합에 따른 영국 국민의 정치적 소외감과 이민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p>
<p>3) 답안작성</p>	

1문단	<p>제시문 [사]는 직접민주주의(또는 다수결)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고 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또는 다수결)의 장점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기관의 정통성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정치권력의 독점을 방지한다. 단점은 전문적 지식 없이 심각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떠맡지 않는다는 점이다.</p>
2문단	<p>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다수결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시문 [다]는 비판받을 수 있다. 산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술적 결정은 전문적 지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나이에 의한 권위와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에 의해 방향이 결정됨으로써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p>
3문단	<p>제시문 [라]는 영국의 EU로부터 탈퇴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어 국민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또는 다수결)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는 영국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EU 탈퇴를 사려 깊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평가함으로써 EU 통합에 따른 영국 국민의 정치적 소외감과 이민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p>

3. [문제 3] 풀이

어느 마을에서 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로부터의 탈퇴)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 마을은 총 100명의 청년과 장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청년일 확률은 0.4이었다. 그리고 임의의 청년 한 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찬성일 확률은 0.2이었다. 또 임의의 장년 한 명에게 질문하였을 때 반대일 확률도 0.2이었다. 청년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1/2이며, 장년은 3/4이다. 이 마을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제시문 [나]의 주장에 대해서 논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청년일 확률이 0.4이므로 청년의 인구수는 40명이고 장년은 60 명이다. 또한 청년 중에 한 명을 물어 보았을 때 찬성 확률이 0.2이므로 조건부 확률 $P(\text{찬성}|\text{청년}) = \frac{P(\text{청년} \cap \text{찬성})}{P(\text{청년})}$ 이므로 청년 중에 BREXIT에 대한 찬성 인구는 16 명이며 반대하는 인구는 24 명이다. 동일한 식을 활용하여 BREXIT에 대한 장년의 찬반의 수를 구하면 장년 중 찬성인구는 36 명이며 반대인구는 24 명이다.

	찬성	반대	계
청년	8	32	40
장년	48	12	60
계	56	44	100

투표 결과는 투표 참여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년이 투표 참여할 확률은 1/2이며, 장년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3/4이므로, BREXIT에 찬성하는 예상표는 $8 \times 1/2 + 48 \times 3/4 = 40$ 표이며, 반대하는 예상표는 $32 \times 1/2 + 12 \times 3/4 = 25$ 이다. 그러므로 BREXIT에 대해 이 마을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투표의 결과는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BREXIT에 대해 이 마을 청년의 대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장년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 결과도 청년과 장년의 양적 우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투표의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중론을 도출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수로 결정되는 이 투표는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